

안녕하세요.

UX/UI PUBLISHER 강사

하 성 아 입니다 :)

Phone | 010.9393.0026
E-Mail | hasungah@gmail.com

섬유 디자인, 실내디자인, 의상학 전공으로 핸드 드로잉 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인 작업이 능숙한 퍼블리셔 강사 지원자 하성아입니다.

아래 다양한 경험들은 제가 퍼블리셔 강사로서 플러스 알파의 능력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SKILLS



EXPERIENCE

2020.07 - 2023.	SC TEX 베딩디자인 프리랜서
2014.09 - 2016.05	아라엔컴퍼니 디자인팀 실장
2012.02 - 2013.04	(주)에이엠컴퍼니 R&D팀 팀장
2009.10 - 2010.09	(주)한영나염 J&E팀 팀장
2006.12 - 2009.07	무지개닷컴 온라인쇼핑몰 운영 대표
2005.01 - 2005.09	황금분할 미술학원 공간디자인 강사
2003.03 - 2004.12	(주)소라실크 디자인실 디자이너
2002.01 - 2003.03	원스튜디오 디자인실 디자이너
2000.09 - 2001.10	(주)이레환경계획연구소 디자인실 디자이너
1997.09 - 1998.08	(주)하나커넥션 디자인실 디자이너
1994.12 - 1997.08	용천텍스 디자인실 디자이너

2010.02 - 2013.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 의상학 전공
1998.03 - 2000.02	서울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 전공
1999.10	한국대학생 디스플레이대전 입선
2005.04	(주)다다실업 여성 모자 경진 대회 우수

핸디캡을 뛰어 넘는 열정

저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17년 간의 커리어를 이어왔지만,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만으로 안정에서 벗어나 UX/UI 웹 프로세서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전까지 국비로 지원 받아 사회 초년생으로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이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편견들을 이겨내고 도전하는 저의 열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들이 비전공자인 학생들에게 가능성과 열정을 주고 그들의 절실함에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심지가 된다고 자부 합니다. 함께 열정을 태우며 성장하고 버팀목이 되는 강사이며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뛰어난 감각과 평생 공부 하는 현직 디자이너 출신 강사

제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는 섬유 디자인 관련 업무들 입니다. 경기를 많이 타는 직종이라 의도치 않게 퇴사를 반복하며 이로 인해 다양하게 도전하고 경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20 대 중반에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며 2 년 내내 장학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총학생회에서 여학생 부장으로 활동하며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소 패션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의류 분야와 많은 관련이 있던 업무를 진행했기에, 직장을 다니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패션 블로그 운영을 하며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과 또 다시 시작 해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큰 세상, 넓고 깊은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신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쉬는 틈을 이용하여 방송대 의상학과에 진학하여 좀 더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의상의 분야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의상학과 진학 중 패턴에 대한 흥미와 필요를 느껴서 국제 패션 디자인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과 공부하는 습관들이 실무에 플러스가 되어 전문가로서 한발 더 다가서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제가 맡은 분야에서는 프로가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나온 길들에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 하고 싶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왔습니다.

핸드 드로잉으로 출발한 섬유 디자이너 였지만 포토샵이나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포토샵과 일러스트 PPT등 독학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스킬이 되었습니다.

UI/UX 퍼블리셔 과정 수업을 받는 동안에도 2-3시간의 수면을 하며 그날 배운 것들은 그날 모두 습득한다라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며 어린 분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 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구직 활동을 하는 지금도 매일 매일 공부하고 배웠던 과정을 리뷰 하고 잘 만들어진 사이트들을 공부하며, 도전하고 노력하는 퍼블리셔 강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없어도 퍼블리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접 실무경험이 있는 디자이너 출신 강사로서 퍼블리셔만 가르치는 일반 강사들과는 분명 차별화가 되었다 자부 합니다.

대표와 직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며 대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을 이해 하게 되었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시각도 절실하게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저 이면서도 퍼블리셔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다양하게 바라 보며 인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감동을 주는 퍼블리셔 강사가 되겠습니다.

책임자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기에 저는 어느 분야에서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